

당정 360명 한자리에...尹정부 첫 정기국회 앞 단합 과시

국민의힘 연찬회 대선 후 처음 열려...추경호 등 장·차관 총출동 국회서 처리해야 할 법안·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 등 폭넓게 논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단합을 과시했다. 국민의힘은 25일 당정이 한자리에 집결하는 연찬회를 통해 9월 정기국회 대책과 정국 경제 타개책을 모색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날 1박 2일의 일정으로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는 지난 3월 대선 승리로 집권여당이 된 이후 처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부처별 장·차관은 물론이고, 외정장을 포함해 총 63명의 정부 고위급 관계자가 집결했다.

세 정부 출범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정리하는 한편, 부동산시장 정상화 해법 등 경제 운용 기조와 민생 현안이 폭넓게 논의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유례없는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출발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 간 단합이 오고 가는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상임위별로 진행될 분임토론에서는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법·추진 전략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8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대치 속에 파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그에 따른 정기국회 대응 전략도 당정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인 노동·연금·교육 분야 3대 개혁은 특이나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중한 대야 협치 구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반도체 주력의 신성장산업 발전, 국가재정 정

상화 등 윤석열 정부의 정국구상과 직결되는 현안들과 관련한 법안을 중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번 연찬회에서 세부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찬회를 통해 경제와 민생을 앞세워 내부 결속을 꾀하고 야당의 협조를 압박하는 여론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취지기도 불어된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 법'(이지성 작가),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윤희숙 전 의원)로 짜인 특별강연 면면에서도 이같은 방향성이 읽힌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5세 취학연령' 논란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현안 추진 과정에서 당정 간의 사전조율을 반드시 거처도록 하는 등 소통 강화 방안에도 방점을 두고 머리를 맞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 부처별로 (주요 정책을 당과) 상의할 것을 강하게 요청해왔다. 그런 일 없이 만약 사고가 생기면 우리가 엄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찬회에는 당에서 해외 출장 중인 14명을 제외한 98명의 의원과 125명의 사무처 당직자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연습인 '울지프리덤실드'(을지자유방패-UFS) 지휘 관제에 국방·행정안전부 장관은 불참하고, 장관이 공석인 복지·교육부도 차관이 대표로 참석한다. 정부 측 참석자는 장·차관 39명, 외정장 24명을 포함해 총 1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기자단을 제외한 전체 연찬회 참석 규모는 3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현안사업 속도 낸다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사업 예타 통과... 해남에 등지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예타 탈락... 하반기에 재도전

전남도가 추진중인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 추진된다. 또 사업비 증액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예산도 내년 국비에 일부 반영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337-20번지 일대 3.0ha에 조성키로 했던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사업이 이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 내년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작물의 효율적 재배 방법과 기술, 방제 기술 등을 제공하고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 재배하기 적합한 작물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성 사업비는 500억원 이상으로, 국비 300억원 이상이 지원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기재부의 예타대상사업과 조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를 거쳐 진행된다.

전남도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 기본·실시계획비 21억원(국비)이 반영돼 내년부터 건립 공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들 임당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를 지원받게 돼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센터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는 미세한 지역별 기상변화에 대응, 농산물 재배 적지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병충해 방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상재해 대비 등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 정책과 연구지원도 총괄한다. 또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 재생에너지원 확충을 위한 정책지원 역할도 맡는다.

전남도는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가 약 8722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 3896억원과 취업유발효과 1만426명의 취업유발효과와 7445명의 고용유발효과 등도 예상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가 최초로 정부에 제안, 사업을 유치하고 예타 통과로 이어지는 성과를 이뤘다"며 "농생명산업의 중심인 전남이 기후 변화 대응에 나서는 대한민국 농업 선진국으로 도

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예산도 내년 국비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와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예초 계획했던 건설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데다 국비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광주시가 요청한 내년도 국비 예산 반영을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대병원이 신청했던 새 병원건립 사업은 이날 기재부 예타에서 탈락했다.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를 미처 마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이달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까지 관계기관 협의·주민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역 사회는 물론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서도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행정 절차를 마친 후 오는 11월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대병원은 2037년까지 1조 2146억원(국비 2760억원·자부담 9386억원)을 투입해 1, 2단계에 걸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김지승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尹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2주 만에 30%대로 올라

NBS 조사, 긍정 32%·부정 63%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2주 만에 30%대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엠베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로 집계됐다.

격주로 이뤄지는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평가는 6월 40%대, 7월 30%대로 내림세를 기록하다가 8월 2주차 28%로 떨어졌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2주차 대비 4%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내린 63%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

(28%), '공정하고 정의로워서'(18%),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해서'(17%)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30%),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29%),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해서'(17%), '정책 비전이 부족해서'(10%) 등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이 소위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거리를 뒀어 한다는 의견은 73%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14%)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NBS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9.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봄에 떠나는 그라운드를 섬어항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입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